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	4
----------------	---

- 미수은 재인가 전망과 경쟁력 분석 내용 및 시사점

주요 동향

◇ 미국, 2분기 GDP 전분기 대비 3.7% 성장, 예상치 크게 상회

-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개인소비와 기업투자 상향 조정
에 힘입어 속보치(+2.3%) 및 예비치(+3.2%)를 크게 웃도는 3.7% 기록,
상반기 GDP 증가율 2.2%로 집계

- 2분기 개인소비는 전분기대비 3.1% 증가, 건설·장비·연구개발
등 기업투자도 예상(-0.6%)치를 크게 상회한 3.2% 증가

※ 미국 GDP 성장률(% , 전기대비 연율) : 4.3("14.3/4)→2.1("4/4)→0.6("15.1/4)→3.7(2/4)

- 미국 경제가 2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중국발 악재에
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인상의 지연
가능성은 낮아짐.

◇ 중국, 기준금리 및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

-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경기부진 및 주가급락에 대응하기 위해
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4.6%로, 예금금리는 1.75%로 각각
0.25%p 인하(8월 26일), 은행지급준비율도 0.5%p 인하(9월 6일 시행)

- '3농(농민, 농업, 농촌)' 부문과 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지급
준비율은 추가로 1%p 인하

※ 중국 기준금리(대출, %) : 5.6("14.11.)→5.35("15.3.)→5.1("15.5.)→4.85("15.6.)→4.6("15.8.)

- 중국 금리인하 발표 이후 세계 증시는 다소 회복되었으나,
시장은 중국의 부양정책보다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
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.

주요 동향

◇ 브라질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

- 브라질 2분기 GDP, 전기대비 1.9% 감소(전년동기대비 2.6% 감소)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여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함.

※ 브라질 GDP 성장률(% , 전기대비) : 0.11(14.3/4) → 0.04(4/4) → -0.7(15.1/4) → -1.9(2/4)

- 가계소비는 전분기 대비 2.1% 감소, 지난 200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, 고정자본투자도 전분기대비 8.1% 감소함.
-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9.56%로 중앙은행 목표치(6.5%)를 크게 상회, 정책딜레마에 빠짐.

◇ 인도, 2015년 GDP 전년대비 7.6% 성장 전망 · 신흥국 강자로 부상

- 인도 중앙은행이 2015년 인도 GDP가 전년(+7.2%) 대비 7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, 16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성장률(+6.8%)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

※ 인도 GDP성장률(%): 7.7('11) → 5.2('12) → 6.4('13) → 7.2('14) → 7.6('15)

- 원유 수요의 80%를 수입에 의존해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를 입어, 신흥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이 증가

◇ 유가, WTI유 40달러대 붕괴

- WTI유는 공급과잉 우려 심화 및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7개월來 최저치인 배럴당 38.24달러 기록, 40달러대 붕괴

※ 최근 WTI油 가격 추이(\$/bbl):

59.47(6.30.) → 47.12(7.31.) → 38.24(8.24.) → 45.22(8.28.)

- 무디스는 최근 유가급락으로 신용등급 B2 이하의 미국 소규모 석유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
- 신용등급 B3 이하 기업들 비중도 2015년초 8%에서 14.8%로 증가

참고자료

주요 경제지표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1	'15.8.28	전주비
₩/US\$	1,088.5	1,195.0	1,173.6	△21.4
₩/100¥	910.12	972.1	969.4	△2.7
CNY/US\$	6.2020	6.3889	6.3894	0.0005
¥/US\$	119.09	122.9	121.1	△1.8
US\$/€	1.2174	1.1283	1.1258	△0.0025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1	'15.8.28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10	1.71	1.72	0.01
미국 국채(10년)	2.17	2.07	2.18	0.11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1	'15.8.28	전주비
한국 KOSPI	1,915.59	1,876.07	1,937.67	61.60
미국 DJIA	17,823.07	16,459.75	16,643.01	183.26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1	'15.8.28	전주비
BDI 지수*	780	984	903	△81
HRCI 지수**	538.1	674.0	669.0	△5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 / 배럴)

유 종	'14년말	'15.8.21	'15.8.28	전주비
WTI유 현물	53.27	40.45	45.22	4.77
Brent유 현물	57.33	45.46	50.05	4.59
두바이유 현물	60.11	47.69	48.70	1.01

- ◆ 최근 재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미수은의 '2014년 경쟁력 보고서'를 통해 미수은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1. 미수은 재인가 진행 현황 및 전망

- 미수은은 미 의회의 재인가 법안* 미처리로 설립 이후 최초로 '15.6.30자로 재인가 기한이 만료됨

- 기존 승인 여신 및 보험의 실행 및 사후관리에 제한하여 운영 중이며, 신규 승인은 중단된 상태

*일몰조항(sunset clause) : 1934년 설립 시 목적이 고용창출을 위한 수출증진인 바, 일정기간(4~5년)의 성과에 대한 검토 후 의회의 재인가를 받도록 미수은법에 규정

- 당초 7월말 재인가를 예상하였으나, 상원을 통과('15.7.26)한 재인가 법안이 하원의 상정 거부('15.7.27)로 인해 7월말 재인가 실패

- 미 공화당내 Tea-Party 등 강경 보수파들이 재인가를 반대하고 있으며, 이들은 당내 다수는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 당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

<공화당의 미수은 재인가 반대 이유>

- 시장경제(작은정부론)에 反하는 불필요한 정부기관
- 정부가 수출 기업에 기업보조금(corporate welfare) 제공
- 민간상업금융의 역할 침해
- 보잉(Boeing), GE 등 대기업 편중지원
- 고위험 거래 지원으로 인한 부실가능성 등

(붙임 2. 미 수은 재인가 쟁점사항 참고)

- 9월말 연방정부 예산안에 첨부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인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

2. 미수은의 자체 경쟁력 분석

□ 지원 조건별 경쟁력 현황

- ▷ '08년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하였던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타 ECA들의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되면서 미수은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
- ▷ 미수은의 금리, 대외위험 수수료 등 금융지원 조건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나, 국가별 한도가 없는 위험인수 정책은 미수은의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

- (금리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비해 조달비용이 증가했던 다른 OECD 회원국이 금리경쟁력을 회복함에 따라, 미수은의 금리경쟁력 약화
- (대외위험 수수료) 충당금 비용으로 인해 OECD 프리미엄 보다 높게 책정되어 중기 거래 경쟁력이 다소 약화
- (위험인수 경향) 미수은은 'On-Off Cover Policy*' 및 'BCL**'를 통하여 개별거래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며, '14년은 안정적인 거래 (BCL3 ~ BCL5) 위주의 지원 경향이 나타남

*국가별 지원 여부를 CLS(Country Limitation Schedule)로 발표하며, CLS에는 국가별, 거래기간별(1년/1년 초과 ~ 7년/7년 초과), 분야별(공공/민간) 금융지원 가능여부가 포함됨.

**BCL(Budget Cost Level)은 승인가능국가에 대한 위험도를 거래기간으로 구분한 위험(신용)등급이며 BCL1이 위험이 낮은 것이고 BCL11이 최고 위험 등급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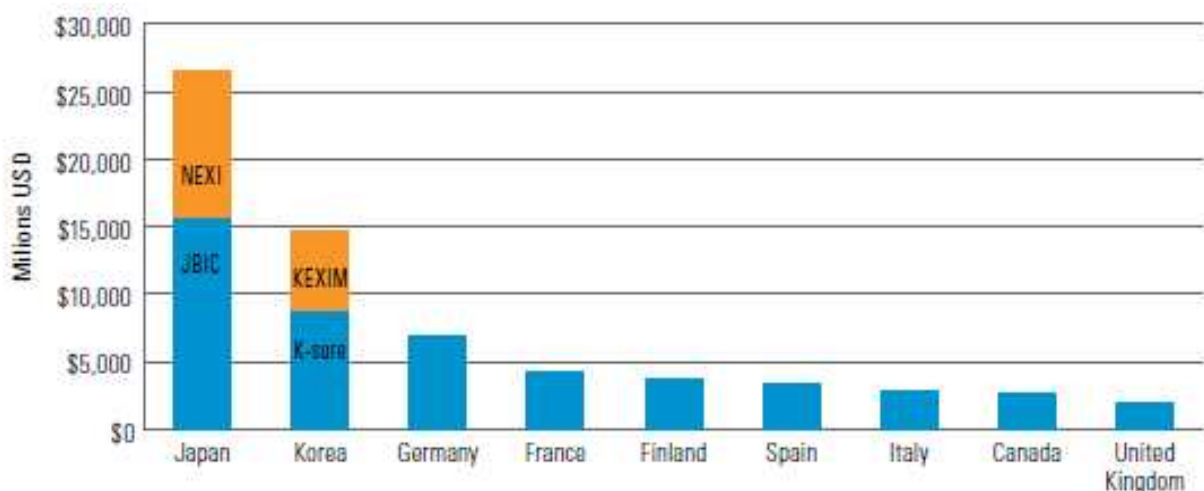
□ 중점 지원 분야별 경쟁력 현황

- ▷ 미수은의 주력지원 산업인 항공기 수출지원은 항공사 발행 채권보증 등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
- ▷ OECD 수출신용협약 비적용거래(언타이드 및 투자)* 지원의 증가와 ECA간 경쟁 심화로 미수은은 PF 및 친환경 거래 경쟁력이 약화, 항공기 수출 협조용자와 서비스산업 수출은 경쟁력을 확보

* 언타이드: 지원 off-take financing, 은행간 신용한도, 투자: 해외투자자금, 지분투자 등

- (항공기 수출) 미수은의 항공사 발행 채권보증(34건, 39억달러) 등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내 선두 지위를 유지
 - 미수은의 항공기 지원실적은 82억불로 전체 지원실적 205억불중 40%를 차지
- (PF) 미수은은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 PF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OECD 수출신용협약 비적용 PF는 아시아 ECA들이 언타이드 금융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원규모를 확대
 - 유럽은행연합(European Banking Federation)에 따르면 '14년 한국 ECA(당행, 무보)와 일본 ECA(JBIC, NEXI)의 PF 지원규모의 합계(410억불)가 상위 12개 ECA 총 지원액 740억불 대비 약 55%를 차지('14년 미수은 지원액 24억불)

<'14년 각국별 PF 지원거래 현황>



자료 : 미수은 경쟁력 보고서

- (협조응자) 미수은의 협조응자의 대부분은 항공기 수출과 관련되며 지원 규모는 전체 달러화 표시 승인액의 60%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
 - '14년 이사회는 협조응자계약 체결절차 간소화
- (친환경 거래) 덴마크, 독일 등의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증가 하면서, 미 수은의 친환경 거래 승인액은 '13년 4.3억달러에서 '14년 3.4억달러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 약화
 - 친환경 수출거래 지원은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관련 제품 등)에 2.1억불 지원
- (서비스 수출) 미수은은 '14년 17억불의 서비스* 관련 수출을 지원 하였으며, 전년 대비 10% 증가하는 등 경쟁력 유지
 - * IT, 엔지니어링, 컨설팅 서비스 등
 - 미국의 총 서비스수출액 7,094억불중 미수은은 0.2%인 17억불을 지원

<최근 3년간 미수은의 서비스산업 분야별 지원실적>

(US\$백만)

	2012	2013	2014
Industry	740.8	579.8	396.5
IT & Telecommunications	89.8	15.0	270.8
Engineering & Consulting	8,080.9	351.5	255.7
Transportation	168.5	74.7	253.7
Oil & Gas and Mining	243.8	136.8	186.6
Legal & Banking	95.1	253.4	109.8
Other Services	24.6	64.7	93.5
Construction	1,290.5	23.4	83.6
Admin & Support Services	148.0	15.5	12.2
Management Service	64.6	-	11.0
Medical	1.3	-	0.1
Total	10,947.8	1,514.9	1,673.4

자료 : 미수은 경쟁력 보고서

□ 기타

- ▷ 모든 지원거래에 대하여 미국의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하는 경제영향평가 및 미국적 선박이용요건(U.S.-Flag Shipping Requirement)은 타 ECA에는 없는 규정으로 미수은 경쟁력을 약화
- ▷ 또한, 엄격히 적용되는 외산 기자재 요건도 미수은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

- (지원거래별 경제영향 평가) 미수은은 모든 지원요청 거래에 대하여 미국의 산업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있음. 이는 다른 ECA는 없는 것으로 미수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
 - 매 거래건별로 경제영향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승인소요기간이 증가하고,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짐
- (외산 기자재) 미수은은 자국내 일자리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외산 기자재 지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
- (미국 국적 선박 요건) 미수은법은 20백만불 초과 또는 만기 7년 이상의 지원거래의 해양운송시 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는 다른 ECA에는 없는 규정으로 경쟁력 저해 요소
- (현지비용 지원 관련) 미수은은 수출금액의 30%까지 현지비용(local cost)을 지원하며, 이는 타 ECA와 같은 수준으로 미수은의 경쟁력을 유지
 - '14년 총 20건(승인액 기준 2.75억불)의 현지비용을 지원하였으며, 이는 미수은 전체 중장기거래 승인액의 6%에 해당함

4. 시사점

□ 오바마 정부의 국가수출진흥전략(National Export Initiative)* 시행에 큰 역할을 해온 미수은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재인가 지연 및 미수은법상 제약 요인은 미수은의 위상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

- 미수은의 재인가 불확실성은 미국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, 경쟁국 ECA에 반사이익으로 작용
- OECD 수출신용협약 비적용거래(엔타이드 및 투자) 지원 불가 등 미수은법상 제약요인은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하에서 ECA로서 미수은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

* 국가수출진흥전략(National Export Initiative) : '09년 발표된 수출진흥정책으로 '14년까지 수출규모를 '09년 수출규모 대비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됨. 현재는 '14년 발표된 2차 계획(NEI NEXT)이 시행중

□ ECA간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양상은 당행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,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보완을 요구

- 미수은 경쟁력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당행의 강점인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 및 EDCF와 연계지원의 지속적인 유지·발전 노력이 필요
- 타 ECA 대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등의 개선 추진 필요

- 붙임 1) 미수은 개요
 2) 미수은 재인가 쟁점 사항.
 3) 미수은 및 주요 ECA 지원실적 추이
 4) 최근 ECA 동향. 끝.

확인자	소장 임병갑
작성자	팀장 이윤관 선임조사역 변광현

구 분	내 용
설 립 연 도	1934년
설 립 목 적	수출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
주 무 부 처	독립 정부기관으로 별도 주무부처는 없으며, 미 의회가 동 기관의 활동 영역, 재인가 여부사항 결정, 자본금 지급, 총괄 감독 업무 등을 수행
주 요 상 품	대출, 보증, 보험
지 원 분 야	수출
감 독 기 관	미 의회, 회계관리국
총 자 산	U\$236억
자 기 자 본 (납 입 자 본)	△U\$10억 (U\$10억)
재정지원비율	100%
재 원	자본금, 차입금 재정출연금
직 원 수	약 450명
'14년 승인실적	U\$205억
연 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34 워싱턴수출입은행 설립 - '45 수출입은행법 제정으로 독립국가기관으로 전환 - '61 해외신용보험협회(Foreign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: FCIA)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업무 실시 - '68 미 의회는 명칭을 미국수출입은행(Export-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)으로 변경 - '78 경쟁국의 양허성자금 지원에 대응하여 구속성 원조 매칭제도 도입 - '94 프로젝트파이낸스부와 항공기금융부 신설 - '06 은행장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 및 중소기업 전담부서인 중소기업금융부 신설 - '12 Global Credit Express, Renewable Express 도입

① 기업보조금 시비

(재인가 찬성측)

- 미수은은 이자, 수수료 등 수익을 연방정부에 송금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납세자에 부담을 주지 않음
 - 지난 20년간(1995~2014) 약 U\$69억을 연방정부 앞 송금('14년 U\$6.75억)
- 전세계 약 60개국이 ECA를 활용하여 자국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,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수출기업에게 공평한 기회의 장 (a level playing field)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

(재인가 반대측)

- 미수은의 지원은 기업보조금(Corporate Welfare)으로 정부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정실자본주의(Crony Capitalism)의 전형임
- 미수은의 금융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되며 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, 특정 기업만이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

② 대기업 편중 지원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미국의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미국 기업의 1% 미만이고, '14년 미수은의 중소기업 지원건수 비중은 약 90%이며, 승인금액 비중으로는 약 25%에 달함

(재인가 반대측)

- Boeing, GE 등 정부지원이 필요없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매우 높아,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음
- 미수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미국 중소기업의 0.01%에 불과

③ 민간 상업금융 침해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민간 상업금융은 바젤Ⅲ 등의 영향으로 리스크가 큰 대규모·장기 프로젝트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의 수출거래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민간금융을 통한 조달은 한계 존재
- 미 수은의 '14년 美 항공산업 지원비중*이 41%에 달하는 등 미 수은은 항공, 발전 등 전략산업 수출에 크게 기여
- * '14년 美 항공산업에 대한 총 여신지원 U\$205억중 U\$81억 지원

(재인가 반대측)

- 민간 상업금융을 통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출 및 교역확대라는 설립 취지는 의미를 상실하였고, 미 수은의 수출지원비중도 2%가 안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관임

④ 부실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부실여신비율이 0.175%에 불과하며,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채택함. 또한 지원 분야와 지역이 다양하고 수출품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위험도가 낮음

(재인가 반대측)

- 고위험 여신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
- 공정한 회계 결산시, 운영비용과 영업 손실로 인한 비용이 10년간 U\$20억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

⑤ 도덕성 시비

(찬성측 논리)

-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임

(반대측 논리)

- '15.4월 뇌물사건 등 최근 5명의 임직원이 부정·부패에 연루되는 등 부패한 정부기관임
- '15년 4월 미 수은 前직원이 19건의 수출거래와 관련 U\$78,900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

<OECD 회원국 ECA의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규모>

단위 : 십억달러

구	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한	국	9.8	22.6	14.8	14.4
독	일	16.7	21.6	22.6	14.2
미	국	21.4	31.3	14.5	12.1
프	랑	15.9	13.0	9.5	8.3
이	탈	8.0	5.4	5.4	5.9
일	본	5.9	3.9	2.1	5.6
기	타	4.2	4.7	4.5	4.7
네	덜	2.9	2.2	3.2	4.5
노	르	3.0	2.2	3.2	4.5
핀	란	3.1	1.8	2.3	3.6
영	국	4.2	2.9	3.9	3.0
덴	마	2.2	3.9	3.8	2.5
스	웨	6.3	5.1	4.2	2.3
캐	나	1.9	1.9	1.9	1.8
스	페	4.4	2.0	1.2	1.7
오	스트	0.7	1.4	1.4	1.4
합	계	110.6	126.0	97.8	96.7

<BRICs ECA의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규모>

단위 : 십억달러

구	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중	국	28.3	35.4	40.6	58.0
인	도	6.2	5.3	5.1	4.5
브	라	4.8	2.7	4.1	1.3
러	시	n/a	0.0	0.7	1.0
합	계	39.3	43.4	50.5	63.9

□ ECA의 기능 및 역할 강화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해법으로 각국은 수출확대 전략을 펴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자국 ECA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
- 국제무역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, 상업금융의 지원규모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20~40% 낮은 수준임. 특히, 리스크가 큰 중장기 여신과 신흥국에 대한 회피성향이 두드러짐
 -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등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상업금융은 ECA 보증이 없는 국외(신흥국) 차주 앞 중장기 거래 취급 기피
 - '14년 상업금융의 신흥국 앞 순자본유입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% 감소하였으며, 금융위기 이전인 '07년 대비 28.7% 수준에 불과

<상업자본의 신흥국 순자본 유입 규모>

(US\$ 십억)

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 ^e 년	'15 ^f 년
446	73	△8	170	199	132	294	128	169

(자료원 :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)

□ OECD 협약 비적용 여신의 증가

- 非OECD 회원국인 중국, 인도, 브라질의 수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BRICs ECA의 중장기거래 지원액은 '14년 1,120억달러를 기록하였고, ECA 전체 중장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%에 달함
 - 특히 중국의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31% 증가한 1,010억달러를 기록하며 BRICs의 성장세를 견인하였으며, BRICs 내 비중 또한 '13년 85%에서 '14년 90%로 증가

- 각국 ECA의 OECD 수출신용협약 비적용 중장기 여신* 지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여신 중 협약 적용 여신 비중이 '13년 39%, '14년 35%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중

*언타이드론(운영자금, 자원개발금융), 투자금융(해외투자금융, 해외사업자금) 등

- '14년 OECD 회원국의 협약 비적용 여신 지원규모는 71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% 증가. 이중 한국 및 일본의 지원액은 각각 150억달러 및 350억달러로 70%를 차지

<ECA 중장기 여신 지원 현황>

(US\$ 십억)

<OECD 회원국 협약 비적용 여신규모>

구분	2013	2014
마켓윈도우	7	3.8*
언타이드	14	18
투자	42	51
합계	63	71

<OECD 회원국 협약 적용 여신규모>

구분	2013	2014
미국	15	12
G6 ECA	45	39
기타	38	46
합계	98	97

*독일의 Kfw/IPEX 지원액이 '14년 정보공개 정책 변경으로 확인불가하여 미포함

(출처 : 미수은 경쟁력 보고서)